

KWDI 이슈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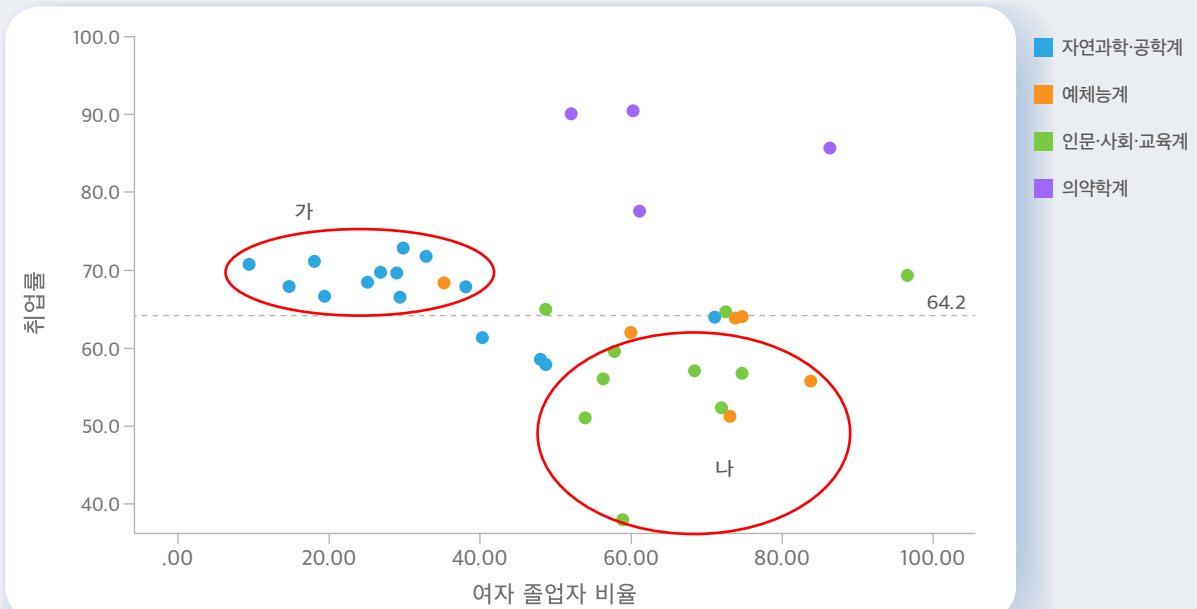
수행과제명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를 위한 분야별 전략개발(III): 성별 전공분리를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신선미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5 / E-mail: seonshin@kwidimail.re.kr)

성별 전공분리로 인한 노동시장 성 격차 해소 방안

초록

- 이 연구는 고등교육에서 성별 전공분리가 노동시장의 성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여학생 진로정책, 고등교육정책, 청년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 청년 여성의 교육수준이 남성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으나 대학생의 전공별 분포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큼. 신규 대졸 취업자의 경우 성별 전공분리가 직종분리의 주된 요인이 되며, 성별 직종분리는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즉, 남성 집중 직종과 남녀 혼합 직종 취업자는 모두 여성 집중 직종 취업자보다 임금이 유의하게 높음.

4년제 대학 전공별(35가지) 졸업자의 취업률과 여자 졸업자 비율 산점도(2018년 졸업자)



주) 전공분류는 중분류 수준에서 35가지로 구분되었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고등교육기관 학교-학과별 데이터셋(2018);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pp. 138-147 자료 활용

1. 연구문제와 배경

- ▶ 4년제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신규 졸업자 취업률은 남성과 여성 간에 약 5%의 격차가 있음(교육부, 2020). 단순히 취업 여부만이 아니라 정규직이나 좋은 일자리에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성별 격차는 더욱 커짐(신선미 외, 2013). 신규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가 성별에 따른 전공의 차이에 기인하는가? 이 연구는 특정 전공에 여학생 혹은 남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성별 전공분리로 보고, 그것이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좋은 일자리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음.
- ▶ 대학 전공과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이공계 기피현상과 함께 이공계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좋지 않다는 연구들(허식·김진우, 2003; 류재우, 2011)이 있었으나, 2010년대 이후로는 인문사회계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음(신선미 외, 2013 ; 윤수경·한유경, 2014; 오호영, 2015; 이재성, 2016; 안영은·민윤경·문인영, 2017). 이 연구는 성별 전공분리가 어떤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성 격차를 가져오는가, 성별 전공분리의 배경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였음.
- ▶ WEF의 「2020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는 전세계 153개 국가 중에서 108위이고, 특히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영역(127위)에서 성 격차가 심함(WEF, 2019:12-13). OECD·ILO(2015)는 양질의 일자리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는데 고등교육 기회와 함께 공학 전공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여학생은 공학 전공자가 적고 교육, 인문사회과학, 보건복지분야 전공자가 많다는 것이 OECD 국가의 공통적 현상임.

<표 1> OECD 국가 고등교육 전공분야별 입학자의 여성 비율

(단위 : %)

국가명	교육	예술, 인문	사회과학, 언론정보	경영, 행정, 법	자연과학, 수학, 통계	ICT (정보통신 기술)	공학, 건축	건강, 복지
	(Education)	(Arts and humanities)	(Social sciences, journalism and information)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	(Natural sciences, mathematics and statist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Health and welfare)
오스트리아	78	67	63	57	49	17	23	69
독일	80	69	65	54	46	21	22	71
일본	71	66	51	35	25	21	13	63
한국	77	64	59	48	45	28	21	68
스페인	79	59	63	55	49	12	24	72
영국	76	63	63	53	53	16	25	77
OECD 평균	78	63	64	54	50	19	24	76
G20 평균	72	61	57	48	48	24	23	68

주: 일본의 ICT 자료는 단기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며 그 밖의 교육 수준에서 ICT에 관한 자료는 다른 전공분야로 포함되었음.
 자료: OECD(2017). *Education at a glance 2017*. p.282.

2. 주요 연구결과

①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유형 구분

▶ Hakim(1993; Argouarc'h & Calavrezo, 2013:3 재인용)이 제안한 방법을 참고하여 전체 졸업자 중 남성 70% 이상이면 남성 집중 전공, 여성 70% 이상이면 여성 집중 전공, 나머지는 남녀 혼합 전공으로 구분함. 2019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은 남성의 경우 남성 집중 33.2%, 남녀 혼합 59.3%, 여성 집중 7.5%이고, 여성의 경우 남성 집중 8.7%, 남녀 혼합 65.5%, 여성 집중 25.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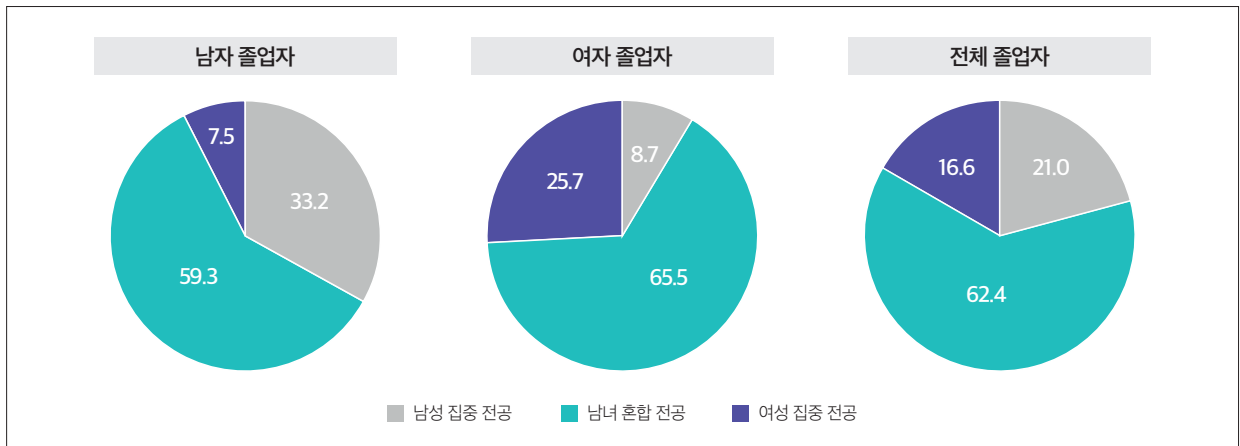
<표 2> 졸업자의 성비에 따른 4년제 대학 전공유형 구분

남성 집중 전공(9가지)	남녀 혼합 전공(16가지)	여성 집중 전공(10가지)
교통·운송, 기계·금속, 산업, 소재·재료,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컴퓨터·통신, 토목·도시, 기타(공학계열의 기타)	인문과학, 언어·문학, 경영·경제, 법률, 사회과학, 중등교육, 건축, 화공, 생물·화학·환경, 수학·물리·천문·지리, 농림·수산, 의료, 약학, 치료·보건, 연극·영화, 무용·체육	초등교육, 특수교육, 교육일반, 유아교육, 생활과학, 간호, 디자인, 미술·조형, 음악, 응용예술

주: 전공은 전공소계열 수준의 35가지임.

<그림 1>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유형별 분포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고등교육기관 학교-학과별 데이터셋(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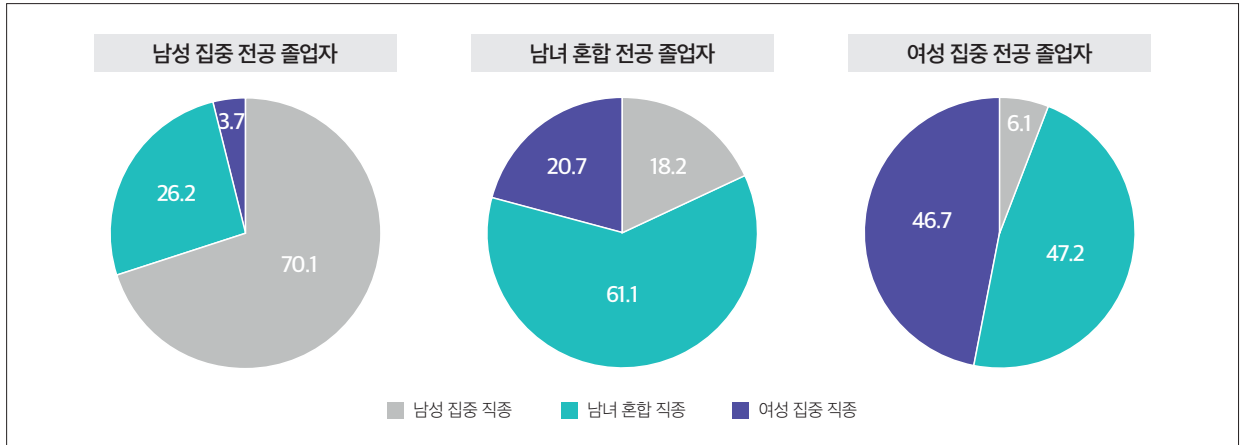
② 성별 전공분리와 직종분리의 관계

성비에 따른 전공유형과 직종유형 간 교차분석 결과

▶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2018) 자료를 활용하여 직업별 취업자 중에서 남성이 70% 이상인 직업을 남성 집중 직종, 여성이 70% 이상인 직종을 여성 집중 직종, 나머지를 남녀 혼합 직종으로 구분함.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17GOMS)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유형별로 취업한 직종유형을 분석한 결과, 남성 집중 전공 졸업자의 70.1%는 남성 집중 직종에 취업했고, 남녀 혼합 전공의 졸업자는 61.1%가 남녀 혼합 직종에 취업했으며, 여성 집중 전공 졸업자는 여성 집중 직종에 46.7%, 남녀 혼합 직종에 47.2%가 취업하였음.

<그림 2>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전공유형별 취업한 직종의 차이

(단위 :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7 GOMS).

성별 직종분리 지수의 전공 요인과 노동시장 요인 분해

- ▶ 2018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17GOMS) 자료를 활용하여 4년제 대졸 취업자의 성별 직종분리를 나타내는 Karmel & Maclachlan 지수를 산출한 후 전공 요인과 노동시장 요인으로 분해함. Karmel & Maclachlan 지수가 0.2075인데 노동시장 요인(0.0950)보다 전공 요인(0.1556)이 컸음. 두 요인의 합(0.2506)은 Karmel & Maclachlan 지수(0.2075)보다 큰데 이것은 노동시장 요인과 전공 요인 간에 서로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성별 직종분리에서 전공 요인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봄. 이것은 청년 노동시장에서 성별 전공분리가 직종분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함.

3 성별 전공분리와 직종분리/임금과의 관계

- ▶ 2018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17GOMS)의 4년제 대졸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 집중 전공 졸업자가 남성 집중 직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으며, 여성 집중 전공 졸업자는 남성 집중 직종으로 이행할 확률이 낮음. 그리고 남성 집중 직종과 남녀 혼합 직종 취업자는 모두 여성 집중 직종 취업자에 비하여 임금이 유의하게 높았음. 즉, 남성 집중 직종 취업자는 여성 집중 직종 취업자에 비하여 24.3%, 남녀 혼합 직종 취업자는 여성 집중 직종 취업자에 비하여 16.3% 높았음.

4 여성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전공계열 비교

- ▶ 여성·남성 집중 전공 여부와 더불어 전공계열(예체능계열을 비교기준으로 삼음)을 회귀분석에 독립변수로 투입했을 때, 전공계열이 4년제 여성 대졸자의 취업 기회와 일자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즉, 취업 확률은 의약학계, 사회계, 공학계가 비교기준보다 높고, 취업자의 사업체 규모가 대규모일 확률과 임금이 높은 확률은 인문계, 사회계, 공학계, 자연계, 의약학계, 교육계 모두 비교기준보다 높았음. 직장 만족도는 교육계가 비교기준보다 높고 인문계는 비교기준보다 낮음. 전공과 직무의 일치도는 공학계, 의약학계, 교육계에서 비교기준보다 높고 인문계에서는 비교기준보다 낮음.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자면 의약학계와 공학계 여성 대졸자가 취업기회가 많고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다른 계열에 비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음.

5

여학생의 대학 전공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요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II(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II) 1차 년도(2016년) 및 3차 년도(2018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여학생이 남성 집중 전공, 여성 집중 전공, 남녀 혼합 전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교과목에 대한 선호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여학생이 남성 집중 전공으로 진학하는 데 수학이 아니라 과학 과목에 대한 선호가 중요함.
- ②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는 여학생이 남성 집중 전공을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자신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도적 진로탐색의 수준이 낮은 여학생이 오히려 남성 집중 전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음.
- ③ 고등학교 2학년 성적 등급이 상위권에 속하는 학생은 중위권 학생에 비해 남성 집중 전공 선택 확률이 낮았는데 이것은 상위권 여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을 목표로 이과를 선택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고 봄.
- ④ 성격 5요인 중에서 성실성 변수의 유의성이 확인되었음. 성실성은 목표지향적, 책임감, 자기규율적,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특성을 핵심적인 측면으로 포함하는데 성실성 변수는 여학생의 여성 집중 전공과 남성 집중 전공 선택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남녀 혼합 전공 선택과는 정적 관계가 있음. 이와 유사하게 암기식 학습 방법에 대한 활용도는 남녀 혼합 전공 선택과는 정적 관계가 있으나, 남성 집중 전공 선택과는 부적 관계가 있음.

6

대학생의 전공선택, 진로개발, 취업준비에 관한 질문지 조사 결과

▶ 여학생이 공학 전공으로 진학하는데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공학 전공 여학생의 대학교육 경험과 졸업 후 진로계획이 같은 전공의 남학생 및 다른 전공의 여학생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자는 4년제 대학의 3학년 이상 재학생(일반계 고교, 자율고, 특수목적고 졸업자로 제한) 1,124명임. 남학생은 공학계만 203명, 여학생은 공학계 244명, 자연계 220명, 의약학계 206명, 인문사회계 251명이고, 대학소재지를 수도권으로 제한했으나 의약학계는 전국의 4년제 대학에서 조사함.

- ① 고등학교에서 문과 혹은 이과를 선택한 이유는 주로 적성과 흥미(35.1%), 미래 희망 직업(19.0%)이었으나 주요 교과목 선호도나 성적이라는 응답도 16.6%를 차지했음. 공학계 여학생(19.5%)과 자연계 여학생(22.2%)의 일부는 고등학교에서 물리(II) 과목을 배우지 않았거나 성적이 낮아 대학 전공 선택에 제한을 받았음. 고등학교에서 물리(III)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학생도 공학계 남학생(9.9%)에 비해 공학계 여학생(23.6%)과 자연계 여학생(20.7%)이 많았음.
- ② 대학 전공 선택에 관해 고등학교에서 진학상담 혹은 진로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더라도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여학생이 많았음(공학계 남 27.1%, 공학계 여 40.5%, 자연계 여 37.3%, 의약학계 여 33.5%, 인문사회계 여 39.5%).
- ③ 공학계 여학생은 전공 선택 시 직업/취업 전망(36.1%)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지만 자연계와 인문사회계 여학생은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자연계 여학생의 37.3%, 인문사회계 여학생의 47.8%). 의약학계열 여학생도 직업/취업 전망(44.7%)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경향이 강함.
- ④ 공학계 여학생은 공학계 남학생 혹은 다른 전공계열의 여학생에 비해 3학년 이후 전공과목이 어렵다고 응답했음. 또한 전공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낮았음(공학계 남 53.7%, 공학계 여 44.3%, 자연계 여 55.4%, 의약학계 여 63.5%, 인문사회계 여 59.3%).
- ⑤ 취업이 어려운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부전공, 연계전공,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학생 비중이 높았음(공학계 남 26.6%, 공학계 여 33.2%, 자연계 여 45.9%, 의약학계 여 8.3%, 인문사회계 여 53.4%). 부전공이나 연계전공보다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것이 어려운데 자연계 여학생(28.2%)과 인문사회계 여학생(36.3%)이 복수전공을 많이 하고 있음.

- ⑥ 공학계와 의약학계 학생들은 전공 관련 분야에서 취·창업하려는 비율이 높고(공학계 남 75.9%, 공학계 여 72.3%, 의약학계 여 81.8%), 자연계와 인문사회계 여학생은 57.0%와 51.8%만 전공 관련 분야로 취·창업을 희망하고 있음. 졸업 후 편입·진학하려는 공학계 남학생은 81.8%가 제1전공과 동일한 전공으로 편입·진학하려고 하지만 공학계 여학생은 59.3%만 동일 전공을 희망함.
- ⑦ 공학계 여학생이 성별로 인해 대학생활에 제한을 받았거나 불평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많았음(공학계 남 9.4%, 공학계 여 25.4%, 자연계 여 16.4%, 의약학계 여 16.5%, 인문사회계 여 17.1%). 취·창업을 희망하는 공학계 여학생의 42.4%가 성별에 따라 취업기회가 공정하게 열려 있지 않다고 응답했음. 공학계 남학생(6.0%)이나 다른 계열 여학생(14-22%)은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적었음.

3. 정책제언

①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여학생 과학교육 강화 방안

▶ 과거에는 여성이 남성 중심의 공학을 전공해도 졸업 후에 이미 남성들이 독차지하고 있던 남성 중심의 전공 분야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컸으나,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남성 일자리가 많았던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전통적 제조업 분야보다 1990년대 이후로 급성장한 ICT 산업에서 여성인력 활용이 더 활발함.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는 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여학생 과학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3> 미래사회 적응을 위한 여학생 과학교육 강화 방안

정책과제(담당부처)	주요 내용
①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 기본방향) 개정(교육부)	• 국가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로교육을 통해 적극적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
② 과학 교과목 학습기회의 성별 차이 해소(교육부)	• 고등학교 2학년 이후 과학 심화교과 등 진로선택 교과목 수강 기회의 성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
③ 고등학교 선택과목 관련 성별 분리 통계 수집·작성(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등학교 유형별(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과학 심화교과 개설 현황, 과학 교사 현황 등에 관한 성별 분리 통계 수집 및 작성 • 수학, 과학 교과목 수강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성별 분리통계 자료 구축
④ 여학생 과학기술 체험활동 콘텐츠 플랫폼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활용 촉진사업'에서 IT 기술을 활용한 여학생 진로탐색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면활동 중심에서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 혹은 부분적 전환을 지원하고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의 포괄성 확대

② 여학생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진로교육 강화 방안

▶ 여학생들의 이공계 전공과 과학기술 분야 직업에 관한 관심과 흥미는 대학의 전공선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고등학교의 전공(문과, 이과) 선택에서 이과 선택 비율이 남학생보다 현저히 낮고, 이과를

선택해도 의약학계와 자연계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므로 남학생에 비해 공학계 진학자가 적음. 노동시장 이행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공학계의 여학생 비율을 높이려면 남학생보다 이과(혹은 과학 과목)를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함.

<표 4> 여학생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진로교육 강화 방안

정책과제(담당부처)	주요 내용
① 고등학교 수학-과학 교과 선택 진로지도 표준과정 개발(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 수학, 기술 교과를 통한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위해 표준과정 개발 • 담당 교과목 교사 대상으로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과통합 진로교육 연수
② 양성평등한 수학-과학 교과 선택 가이드 및 영상자료 제공(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가 개발하여 에듀넷에서 제공하는 '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를 여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커리어넷에서 제공
③ 여학생의 과학분야 청소년활동 활성화(교육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여학생의 수학-과학 동아리활동 기회 확대 및 전국 여학생 동아리 교류활동 지원(예, 여고생 물리캠프) • 이공계 전공과 과학기술분야 진로탐색 지원사업(예, 과학기술인재 진로지원센터,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3 공과대학의 여학생 공학교육 혁신

▶ 지난 20년간 4년제 대학의 공학계 전공 중에서 화공과 건축만 남성 집중 전공에서 남녀 혼합 전공으로 이동했을 뿐 나머지 남성 집중 전공(8가지)에서 여성 비율은 여전히 30% 미만임. 공학분야의 여성인재풀 확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학계 여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했거나 전공이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음. 둘째, 3학년 이후 전공과목 공부가 어려웠다는 여학생이 많고(남 66.0%, 여 76.2%), 전공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낮음. 셋째, 대학생활에서 성별에 의한 제한이나 불평등 경험이 있다는 여학생(25.4%)이 남학생(9.4%)보다 많음.

<표 5> 공과대학의 여학생 공학교육 혁신 방안

정책과제(담당부처)	주요 내용
① 남성 집중 공학분야에 여학생 유치 프로그램 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과정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공과대학 스스로 우수 여학생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예, 고등학교 2-3학년 여학생 대상 공과대학 진학을 위한 멘토링 실시) • 정부 R&D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 중에서 여학생 비율이 높은 대학에 가산점이나 여성 연구원 활용을 위한 연구비 인센티브 검토
② 공과대학의 양성평등 교육환경 진단(교육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를 벤치마킹하여 전국의 공과대학들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교육환경을 진단할 수 있도록 '공과대학의 양성평등 교육환경 진단' 도구 개발·보급함.

4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인문·자연계 전공 교육과정 혁신 방안

▶ 인문계와 자연계 여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졸업 후 직업·취업전망에 대한 관심이 적고, 적성과 흥미, 교과목 선호도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함. 그리고 인문계와 자연계 전공학과는 기초학문을 가르치기 때문에 특정 직업분야의 전문인력양성 기능이 취약함. 인문계 및 자연계 전공학과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전공분야의 인력수요를 발굴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전공교육과정 혁신이 필요함.

<표 6>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인문·자연계 전공 교육과정 혁신 방안

정책과제(담당부처)	주요 내용
① 대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진로계획과 인력수요처의 요구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권 강화(학부제, 전공학과 변경, 부전공, 연계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학생설계전공 등)
② 대학의 전공학과별 진로경로 유형화 및 학과 홈페이지 게재(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 학생경력개발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공학과별로 진로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진로경로 실태를 분석 • 진로 유형별 진로정보를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진로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③ 중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에서 성 격차에 관한 통계 생산(교육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학교, 대학, 대학원에서 교과목과 전공 분야의 성 격차에 관한 통계생산을 통해 정책 관계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성 격차 해소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센터 홈페이지, 학교알리미,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성별 차이, 영재고, 과학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공업계, 상업계 등) 학생 성비, 성별에 따른 교과목 선호도 및 선택교과목 수강 현황, 대학 및 대학원의 전공 분야별 학생 및 교원의 성비, 신규 대졸자의 전공 분야별 졸업 후 진로 차이 등에 관한 통계정보를 제공 • 대학평가, 중등학교평가에 핵심적인 성 격차 지표(대학 교원의 여성 비율, 학업성취도 성별 차이, 학생의 졸업 후 진로의 성별 차이 등)를 활용

5

청년 직업훈련에서 성별 직종분리 해소방안

▶ 청년층 구직자들의 희망 직종은 중고령층에 비해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 덜 심각하지만 취업 경쟁력이 낮은 청년 여성 구직자들의 경우에 희망 직종이 여성 집중 직종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오은진 외, 2020), 그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여학생들이 진출하던 전통적인 서비스 산업이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 취업률이 낮은 인문계, 자연계 여학생들에게 대학 재학 중에 ICT 분야 등 비전공분야의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높이도록 지원함.

<표 7> 청년 직업훈련에서 성별 직종분리 해소 방안

정책과제(담당부처)	주요 내용
① 직업훈련기관별 훈련생의 성비 불균형 개선 권고(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이공계 대학으로 하여금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직업훈련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직업훈련기관 심사평가 등을 통해 훈련생이 성비 불균형이 심한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② 폴리텍 및 공공훈련기관의 양성평등한 훈련환경 진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기관 임직원 및 강사의 양성평등 의식, 훈련상담에서 성 인지적 상담활동, 훈련과정별 성 인지적 교수법 및 사후관리(취업연계 포함)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훈련환경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훈련기관들이 자체 진단에 활용하도록 함. 자체진단 결과를 수합하여 훈련기관의 양성평등한 훈련환경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양성평등한 훈련환경을 조성함.
③ 청년고용장려금에 성별 직종·직무분리 완화 인센티브 제공(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여성이 남성 집중 직종에 취업하거나 청년 남성이 여성 집중 직종에 취업할 경우에 청년 및 사업주 대상 고용장려금을 추가 지원함.

참고자료

교육부(2020).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결과 발표(2020. 12. 29. 조간 보도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8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류재우(2011). 이공계 인력의 질과 노동시장 성과 : 한국과 미국의 비교. 「응용경제」, 13(1), 27-53.

신선미·민무숙·권소영·고혜원(2013). 「미취업 여성청년층의 취업준비활동 효과와 취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영은·민윤경·문인영(2017). 대졸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중장기적 고용안정성 연구. 「직업교육연구」, 36(5), 73-94.

오은진·신선미·정성미·김효경(2020).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서의 성별 직종분리 현황 및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오호영(2015). 인문계 대졸 청년층 취업 이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The HRD review」 2015년 11월.

윤수경·한유경(2014). 대학생의 취업성과 영향 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3(4), 131-160.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이재성(2016). 인문계열 전공의 페널티?: 타 전공과의 노동시장 성과 격차 비교분석. 「2016 고용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 532-551.

허식·임진우(2003). 전공계열간 임금격차에 관한연구 :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공학계열 중심으로. 「응용경제」, 7(1), 21-36.

Argouarc'h, J. & Calavrezo, O.(2013). La répartition des hommes et des femmes par métiers. DARES Analyses, décembre 2013, n° 079.

Hakim, C.(1993), Segregated and integrated occupations: a new approach to analysing social chang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9(3), 289-314.

OECD(2017). *Education at a glance 2017*.

OECD · ILO(2015). Monitoring progress in reducing the gender gap in labour force participation . Report prepared for the meeting of the G20 Employment Working Group Istanbul, Turkey, 7-8 May 2015.

<https://www.oecd.org/g20/topics/employment-education-and-social-policies/Monitoring-progress-in-reducing-the-gender-gap-in-labour-force-participation.pdf>.

WEF(2019). *Global gender gap report 2020*. http://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0.pdf.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담당부서)